

**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원인분석

실패나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도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거다.

요즘 실패학이 뜨고 있는데, 그것은 위로 차원에서 실패담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원인분석과 분석에 따른 조치로 성공을 이끌어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 일이 안 풀리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왜 아플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가난할까' 하고 원인을 캐야 한다.

나는 그 답을 얼마 전에 만난 우리 교회 초창기 전도사들의 이야기로 대신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난 자들이다. 모처럼 만난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예전에 우리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그 때는 정말 그랬다. 전도사들은 물론 평신도들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병도, 가난도, 고통도 나가게 되어있다. 가난, 병, 고통, 다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귀신의 작태인데, 그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게 되어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나를 공격하는 짐승을 죽이듯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신을 쫓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조치까지 알았으니 이를 실행하여 이 땅에서와 내세의 성공을 기약해보자.

#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호주 시드니(Sydney)의 푸른 하늘과 양떼구름이 빛내는 풍광은 참 아름다웠다. 시드니 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는 집회 전에 나왔던 일주일 기상예보 화면과 시드니 북쪽 지역에 홍수가 났다는 뉴스화면도 캡처하여 보여주었다.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날씨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지만, 이는 문 목사의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해외집회를 다녀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 집회를 준비하는 자들이 집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는다. 따라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집회는 목사님이 처음부터 팬팡을 두드려 깨는 작업부터 하셔야 하니 몇 배

"나는 33년 전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교회의 일꾼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하사 다른 교회의 믿음 좋은 조장, 구역장 등 견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바로 그들이 우리 예수중심교회 부흥의 초석들이 된 것이다. 지금 문 목사와 김 목사가 기도할 것은 오직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

목사님은 김평강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좋은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시면 서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인재제일주의를 강조하셨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세계 초일류 기

하세요." 기쁜 소식은 이번 시드니 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와 골드코스트(Gold Coast)에 모두 4개의 예수중심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목사님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전 세계로 가지를 뻗어 처처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실상이었다.

집회를 모두 마친 후, 숙소로 힐송교회(Hillsong Church)의 이 집사가 찾아왔다. 그는 힐송교회의 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데 이번 집회에 큰 은혜를 받고 시드니 예수중심교회로 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목사님은 그가 시드니 예수중심교회의 장로가 되어 문 목사를 도와 일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셨다.



호주 시드니 집회 광경((Westella Renaissance Grand Ballroom))

나 힘든 집회가 된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로 준비된 집회는 때가 맞아 돌아간다는 표현처럼 물 흐르듯 평안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시드니 집회는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은 이번 집회를 위해 처음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문정훈 목사와 김평강 목사를 도와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7-38).

업들이 전 세계로 인재사냥에 나서는데 유도 결국 인재가 기업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와서 품이나 잡고 목소리나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각종 은사로 무장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이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꾼입니다. 목사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여 적재적소에 일을 맡기고 격려하며 성장을 리드해가면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여 첫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으니 이것이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문 목사는 그 자리에서 이 집사와 포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호주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셨다. 이제 호주교회들은 그들이 뿌리는 눈물과 기도만큼 성장해갈 것이다. 성도여러분의 합심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호주 시드니의 문 목사 및 김 목사 부부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시드니 예수중심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0:9~16)



# 나는 어떤 의의 기준을 갖고 사는가?

사람마다 의(義)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의의 바로미터가 되며, 그분이 정하신 법이 곧 변개할 수 없는 의의 정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10:15)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렸고, 이 환상은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과 식솔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하면 당신의 기준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의의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예쁜 짓을 했거나 에서가 못된 행동을 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그것이 옳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하나님의 의는 때론 사람이 생각하는 의, 우리가 정한 도덕, 우리가 판단하는 양심과 상반됩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동이 난 사렘다 과부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먹고 아들과 죽으려 했습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사르밧을 지나다 그 집에 유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먼저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떡살을 잡아도 시원찮은 일입니다.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말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선지자에게 그 떡을 넘긴 과부는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왕상17:14).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사 그 과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건 아이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싹 쓸어버리라고 하면 싹 쓸어버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아각도 살리고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아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각을 칼로 죽였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 있으나 의의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10:2~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 대단한 열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

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의가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의롭

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

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는 줄 아는 고로 우리

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2:16).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여기셨기에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가 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평생 악하게 살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강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 그 말 되냐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갔습니다. 살인마들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합당한 일입니다. 반대로 평

생을 선하게 살고, 평생 선행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람의 도덕, 양심, 방법... 이런 것들이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본주의 습성을 낳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고후10:3~4). 우리는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면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옥가기 때문입니다.

###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자

66권의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의 종이 옳은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와 대립될 때 정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떠날까봐, 성도들이 시험들까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나팔수로 세웠는데 나팔을 제대로 불어주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겔3:17).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는 옳은 말을 들을 수 있는 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쓴 소리에도 넘어지지 않는 멧집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온갖 이론과 논리와 의의 기준이 판을 치는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된 것에는 가차 없이 훈계와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 손에서 피 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의 타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름의 의의 기준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저울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결랑 과감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 해야 할 일

한 사람이 죽어서 천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탁대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지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운동도 다 하고, 아름다운 사람과도 사귀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모두 다니는 등, 살아 있는 동안 해보지 못한 모든 것을 실컷 해보았습니다.

이러저러 모든 것을 다 해보니 조금씩 싫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삶의 의미를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곳은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일 이렇게 놀고만 지내는 이곳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천사는 한심하다는 듯이 그를 보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드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던져버리고 마음껏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정년퇴직한 사람들 대부분은 퇴직 후 처음 6개월 정도는 너무 편하고 좋는데 점점 시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을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하기 싫지만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귀찮고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을 타인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는 행위로 생각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개개인이 해야 할 미션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반갑고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찬송과 찬양이 아닐까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목회자는 길을 헤매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참신하고 호소력 있는 설교를 불철주야 준비하고, 성도들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방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역지로 일을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일이 재미있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동주 시인의 서시를 일부 패러디해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천국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전도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관섭  
kwansup1029@gmail.com

# 백지 성경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로제트가 하룻밤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성경을 펼쳤더니 전체가 백지였다.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깜짝 놀란 나는 옆집에서 성경을 빌려와 확인해보았다. 역시 백지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에 글자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각처에서 성경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였으나 모든 말씀을 다 쓸 수는 없었다. 평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놀라고 크게 낙담하여 깨어보니 꿈이었다. 급히 일어나 책상위의 성경을 펼쳐보니 모든 글자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한 자 한 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과 동시에 최고 양질의 영의 양식인지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4:4). 이 양식을 섭취하던 다윗은 너무나 맛있어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시19:10) 라고 감탄한다. 또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3,105).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우리 주변에 백지인 채로 방치되어있는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백지 성경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을 언제나 펴들고 있으라.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열려져 있을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To Be Succeeded ::

:: 귀를 기울이세요 ::

#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

총탄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들을 총으로 쏘 죽인 범인을 기꺼이 양아들로 삼았다.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목사님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순교의 영광까지 누리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안일함, 교만, 미움, 좌절 등에서 허우적거리곤 한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영혼과 삶의 생사화복이 이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친 요셉,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기에 조금도 해하지 않은 다윗,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내놓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처해진 환경,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끝내 승리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 하와를 꾀어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그 시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죄악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사사로운 감정, 내 연약한 성품, 험겨운 환경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뜻뜻미지근하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입성해야 하기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이 땅에서는 악한 마귀의 체계가 진멸되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 주님을 바라보자!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이없이 비판을 감수해야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다. 성탄절 성극준비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 "하나님,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 때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현혜야,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다." 나한테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힌 그 사건을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현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먼저다."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하루를 회개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와 함께 회개기도를 드렸다. 아침과 점심에 짬을 내어 기도를 했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나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를 했었나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 그리고 "아빠, 너무 사랑해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너의 아빠라 참 다행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작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평안한 기도였다. 그랬더니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날 염려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다 닦아놓으셨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삶의 순간마다 흥해 같은 문제가 늘 생긴다고 하셨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것에 집중했는가? 그렇다면 속히 방향을 돌려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만 바라보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2015년 2월말 동해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하기 전 한 꿈을 꾸었는데,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찬집에 총회장님께서 들어가셔서 물 펌프로 물을

뽑아 올리는데 제가 총회장님 옆에서 돕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행정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동해교회로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해교회에 왔습니다.

동해교회에 와서 보니 세운 지가 몇 해 되었는지 손 볼 곳이 많았습니다. 일단 비용을 최소화하여 방도 만들고 아담하게 성전 분위기를 바꿀 생각으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기도원 춘계집회 때 박인택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교회를 수리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자재 일체를 가지고 오셔서 깨끗하게 수리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총회장 목사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자상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성전에 습기가 차고, 성전 앞뒤 천장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쏘입니다.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써주심에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에서 '저 교회는 가난하다'는 소리가 들려 억울해서 "교회가 가난해

서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증거로 소형차 대신 봉고차로 바꾸어주시고, 간판도 교회의 얼굴이니 새것으로 바꾸어주세요." 하며 21일 작정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봉고차도 주시고 간판도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그걸 본 마을분들은 제가 지나가면 와서 차 한 잔 들고 가라고 권하며 대하는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더군요.

2016년 겨울에 "하나님, 추워서 성도들이 힘듭니다. 히터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박 목사님께서 새 것으로 사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났습니다. 2017년 4월 초, 봄에 식혜를 만들어 마을 분도 나눠주며 비디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건물이 감리교회에 매매되었으니 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 보증금 백만 원에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전하려면 적어도 이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에서 잠을 자며 작정 금식기도하면서 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 건물 2층에 60평 되는 건물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계약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는 총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총회장님께서 보증금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바꾸어 '교단 돈을 쓰지 않고 이전하게 해주시고, 이 예수중심교회는 총회장님의 얼굴이니 부족함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 이전만원이 들어와 계약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의 헌신적인 봉사과 물질과 기도로 아름답게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간판도 새것, 프로젝트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전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날씨가 늦어져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것 같아 단에서 잠자며 또 작정 금식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총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2017년 11월 7일, 이전예배도 성황리에 드렸습니다. 이전예배에 오신 장로님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름 무더위에 고생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꼈더니 에어컨과 냉장고도 새것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쉬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맞추어 응답해주시고 이 무익한 종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이전예배 때 주신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부임할 때 그 첫 마음 그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립니다.

동해예수중심교회 김기연 목사

# 행복을 결정하라

사람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라고 합니다.

'관계의 힘'의 저자(Raymond Joe)는 '인간은 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계문화'와 '정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인맥과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수평과 수직의 십자가의 도를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기초공사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 기초공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받을까?' 보다 '무엇을 줄까?(잠19:6)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해 가슴에 품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이들은 한 끼 식사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마음이 상한 이들은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오래 전에 지하 단칸방에 살던 성도가 교회에서 주는 쌀 한 포대를 붙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아낌없이 주는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통장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돈과 재물의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통장이며, 마지막 하나는 영혼의 통장이라고 하더군요. 돈과 재물을 인간관계형성에 투자할 때 마지막 통장인 영혼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한 명과 두터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최소 250명과의 간접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니 평소에 관계형성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김정욱 전도사 jcc0115@naver.com

## 기도원 산상집회 12월 11(월) ~ 14일(목)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뇌졸중(腦卒中)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이라 한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 부르는 병명이다. 뇌졸중하면 추운 겨울 아침,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노인이 떠오른다. 날씨가 추우면 체온 발산을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이른 아침은 교감신경이 가장 빠른 속도로 흥분되는 시기다. 여기에 용변 도중 갑자기 복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오르게 된다. 직경 0.2~0.4mm에 불과한 가느다란 뇌동맥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한다. 위 사례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뇌혈관은 혈압이 정상 혈압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1,520mmHg까지 올라가도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 혈관이 말랑말랑하게 신축성이 있어서 웬만한

혈압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이 들면서 동맥경화로 혈관이 푸석푸석해져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거 고혈압 환자가 많았던 시절엔 뇌출혈이 많았지만 최근엔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뇌졸중의 8할이 뇌경색일 정도다.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등으로 현대인들의 혈관에 지방 찌꺼기가 많이 축적된 탓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뇌경색에는 본격적인 발작 이전에 이를 예고하는 전조증상이 있는데 이를 일과성 뇌허혈증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잠시 뇌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되지 않다가 다시 풀린다는 뜻이다. 한쪽 눈의 시야가 깜깜해지고 어지러워 주저앉는 다든지, 갑자기 손놀림이 둔해서 애를 먹는 다든지 하는 증세가 수초 내지 수분 동안 지속됐다가 좋아진다면 일과성 뇌허혈증을 의심해야 한다. 일과성 뇌

허혈증이 중요한 이유는 장래 큰 뇌혈관이 막히는 본격적인 뇌졸중 발작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만 병원을 찾아도 본격적인 뇌졸중 발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신경과 등 전문 진료과에서 예방적 차원의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본격적인 뇌졸중 발작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졸중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상은 어느 한쪽 팔과 다리로만 마비나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체 말고 응급실로 가야한다.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혈전용해 치료는 단 1분이라도 빨리 시작될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발작 직후의 초기 대응이 평생의 결과를 낳는다. 혈전 용해 치료는 3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효과적이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무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너의 혀 입을 다하라  
그리고 나머지 입을 하늘에 맡겨라

